

양계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길...

노 영 한 (사)한국축산시설환경협회 부회장/전 본지편집국장

월간 양계 35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60년대 후반기는 국가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던 시대이었으며, 경제 개발을 이루어야하는 군사정부로서는 화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4.8kg(닭고기는 0.07kg)이고, 1인당 계란 소비는 3.5개 정도 이었으니 양계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산업은 다행히 자본 회전이 빨라 다른 축종에 비해 선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양계협회가 주도적으로 잘 활용하였기에 사료산업, 동물약품, 시설 기계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까지 주도하여 축산업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주요산업으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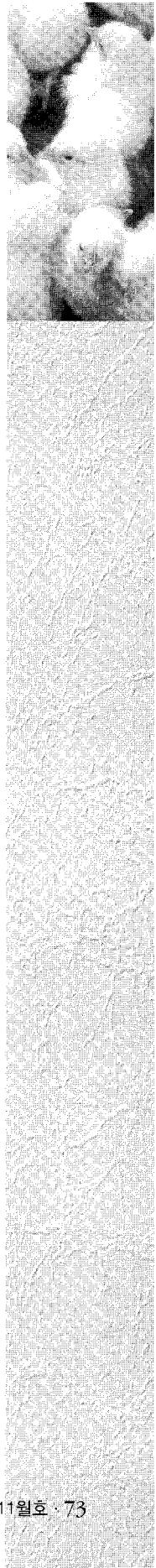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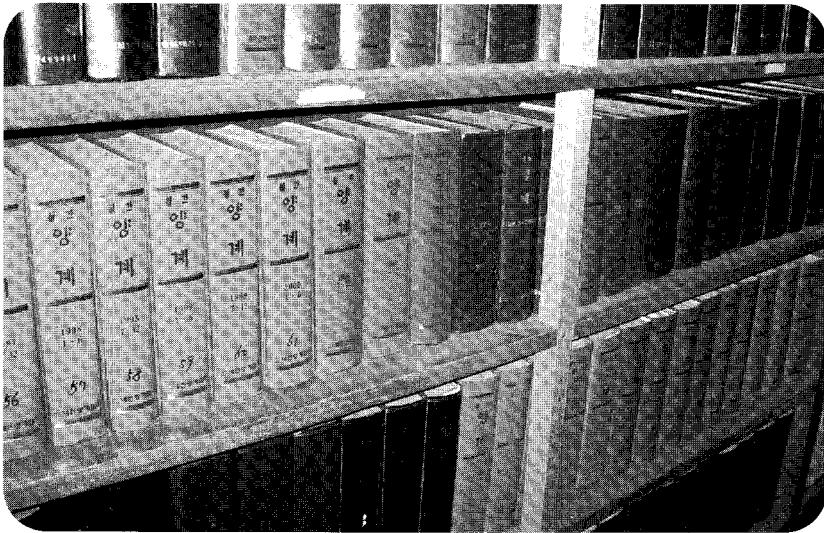
협회는 이러한 사업을 월간양계를 통해 하게 되었고 축산업계의 주요정보 보관, 공급 기능을 다하여 왔기에 한달도 결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몇 번의 축산업계에 시련이 있었지만 월간 양계와 협회가 이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등 월간 양계를 빼고 우리나라 양계를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동안 월간 양계 발행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월간 양계 421번을 발행하는 동안 양계산업의 여건도 양계산업이 변화한 것 이상으로 크게 변화 하였다. 양계산업이 축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적어지고 수입 개방에 따라 농기업으로 발전한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양계산물과 경쟁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생산여건이 점차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한





월간양계, 양계업외에 바란다



때는 일본의 모든 재벌이 양계산업에 참여하였다가 이제는 국내 생산에서 수입업자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앞날을 보게된다.

우리 여전에서 양계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월간 양계가 선지자로써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변화하는 여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방화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와 함께 소비자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해외취업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접함으로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닭고기, 계란을 구매하던 입장에서, 맛과 건강식품으로 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비자도 변화하고 외국의 양계산업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이 어떻게 변화하여가고 있으며 그들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무엇이고 성공적이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어떻게 한국화 할 것인가 등 준비해야 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러한 경영, 생산, 기술, 정책, 소비, 유통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월간 양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중요해 질 것이다.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관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와 월간 양계의 역할이 새삼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특히 월간 양계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창간 35돌을 축하드립니다. ☺